

GIST, 하버드 의대 나노메디슨연구소와 AI기반 디지털바이오 분야 연구 협력

-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첫걸음
- 우주의과학 분야를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바이오 분야 공동연구 수행 및 기술, 연구인력 교류 등 실질적 협력 기대



▲ GIST 생명과학융합연구소와 하버드의대 의공학·나노메디슨연구소가 최근 생명과학 및 우주의과학 분야를 포함한 AI기반 디지털바이오 분야 공동연구 수행 및 기술, 연구인력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GIST 조경래 교수, 하버드 의대 최학수 소장, GIST 전창덕 소장, GIST 정의헌 교수, 남정석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생명과학융합연구소(소장 전창덕, 생명과학부 교수)가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의공학·나노메디슨연구소(소장 최학수)와 생명과학(항암대사, 만성대사질환연구) 및 우주의과학(우주헬스증개연구) 분야를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바이오 분야 공동연구 수행 및 기술, 연구인력 교류 등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화) 밝혔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MGH는 지난 1811년 설립된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의료기관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식은 9월 19일(화) GIST 생명과학부 바이오홀에서 하버드 의대 나노메디슨연구소 최학수 소장과 GIST 전창덕 연구소장, 생명과학부 남정석 학부장, 조경래 교수와 의생명공학과 정의헌 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미정복질환 극복 공동연구 참여 ▲거대 AI 활용 바이오헬스 분야 신규 연구사업 기획 ▲데이터 공유 및 세미나, 워크숍, 단기연수 등 학술행사 개최 ▲기술 및 전문 연구인력 교류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헬스증개연구는 우주 환경이 인체 생리와 인지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생물학·의학적 과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우주비행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까지 개발하는 연구 분야다.

우주기술의 산업화는 특히 바이오-제약, 의료 및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민간우주관광 개발기업인 '액시엄 스페이스(AXIOM SPACE)', 항공우주 방산 전문 투자기업 '스타버스트(STARBURST)' 등과 같은 스타트업 회사들에 의해 급속히 진척되고 있다.

전창덕 소장은 "이번 연구 협약으로 GIST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 참여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GIST가 보유한 인공지능(AI) 관련 연구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미정복질환 극복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 교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글로벌 연구 협력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MoU 체결에 앞서, 양 연구소의 핵심 연구자들은 '우주환경활용 의생명과학 기반기술연구 융합클러스터(클러스터장 조경래 교수)'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인하대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우주의학 심포지엄(The 1st Korea-U.S. Space Health Symposium)에 참가해 미국 NASA TRISH(Transl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Space Health) 핵심 연구자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갖고, 향후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GIST는 밝혔다.